

[7. 21.자 MBC “이 前 기자 설명듣더니...그런 건 해볼 만하다” 보도에 대한 반박]

1. MBC의 녹취록 관련 보도는 왜곡·편향되었으며, 녹취록 부분 공개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 녹취록을 편집 없이 그대로 공개합니다.

* 본 사건과 무관하게 언급된 분들은 비실명 처리, 비속어 부분은 △△으로 표시

◆ @2월 13일 이동재-P○○○ / 한동훈 부산 출장 만남

이동재 : 갔다 와라 해서 기왕 가는 거 좀 일찍 가서.

한동훈 : 미리 얘기를 하지.

이동재 : 회사가 또 오늘 내일 하루살이 회사라서

한동훈 : 그런데 뭐 여기는 그냥 루틴 한 그거라서 (윤석열 총장이) 아무 말도 안 할걸? 우리가 뭐 A○○야. 아무거나 막 던지고.

이동재 : 저희는 그냥 바람이나 쐬러 왔어요.

이동재 : 저희도 사실 소시민으로서 검사장님,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선일보 보니까 뭐 이렇게...

한동훈 : 아니 그럼 안 한다고 거절하지 그럼 하겠다고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딴어?

이동재 : 그걸 뭐 전화까지 걸어 가지고 그렇게 또.

한동훈 : 아니 그럴려면 미리 얘길 해야지. 밖에다가 다 질러놓고 나서 무슨.

이동재 : 항상 이런 식이죠 보면.

한동훈 : 아니 그래놓고 나서 전화했다라고 자기가 한 거자나. 그건 말이 안 되지.

이동재 : 그렇죠. 다들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총장님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실지. 아니면 뭐 그런 얘기까지 안 하시겠지만.

한동훈 : 심지어 한겨레까지 해줬는데 뭘.

이동재 : 그런데 수사 기소 검사 분리 이걸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꼬집어내는지.

한동훈 : 딱 하나야. 무조건 수사를 막겠다 권력 수사를 막겠다 그런 일념밖에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문제는 공부 좀 하고 하라고 그래. 매번 틀리고 지금까지 맞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후배 기자 : 법무부 법무관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자료 찾는다고.

한동훈 : 아니 질러놓고 찾으려면 어떻게 해?

이동재 : 질러놓고 미국 것 찾아라. 일본 것 찾아라.

한동훈 : 거기다가 미국에게 얘기할거야? 명을 거역했다고? 아니,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섭질을 하고 앉아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에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

이동재 : 맞습니다.

한동훈 :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

이동재 : 사람이 약간 상상까지 하게 되는 게 □□□□(타 언론사를 지칭)에 B○○은 혹시 청와대에서 흘린 건가 하는 이런 생각도 사람이 하게 돼요 보니까.

한동훈 : 그거 가지고 뭐 별로 영향이 있겠어?

이동재 : 검사장님 옛날에 반부패 강력 계실 때도 인피니 의원인가 C○○ 저기 할 때...

한동훈 : 그런데 이건 아직 뽕은 아니자나. 프로포폴이라는 것은 사실 정상적으로도 맞을 수 있는 거야. 그 횡수라는 건 여러 가지 팩트를 해 봐야 할 문제기 때문에 미리 다녀도 괜찮아.

이동재 : 채널A는 단신으로나 쓰려나.

후배 기자 : 저희는 뭐 안 쓸 것 같아요.

한동훈 : 아니 이거는 뭐 나는 그 사람(B○○)을 아시다시피 봐줄 생각이 제일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걸 다 떠나서 이 이슈는 조금 파악이 된 다음에 갈 문제지. 그러니까 프로포폴 문제라는게 정확하게 투약이냐 이런 게 딱 나오거나 그런 게 확인되지 않으면 기소가 쉽지 않아. 경찰이 D○○ 잡으려고 별 지랄 다했지만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냥 그랬을 것 같다는 것과는 달라. 그리고 문제는 뽕하고는 다르다고. 뭐냐면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되는 약이 아니야. 그거는 검진 받을 때 맞는 약이자나. 그건 기본적으로 남용했을 때 죄가 되는 거지 그렇지? 히로뽕이나 코카인같은 식으로 딱해서 머리카락에 나오면 딱 끝!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아니여서 그게 만만치가 않아. 수사 자체가.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항상 배우들이 이슈가 되지. 배우가 항상 이슈가 되는 사안인데 그런 사람들은 잘 봐야지. 보면 개연성이 있지. 개연성이 있어 보이지. 그런데 개연성이 있는 것하고 입증되는 것하고는 이게 프로포폴 이기 때문에 바로 덜컥 물 정도는 아니야.

이동재 : 사실 이전에 저희 C○○ 때 간호조무사 이런 애들이 엄청 들락날락하고 간호사들하고 그래서.

한동훈 : 저거는 보니까 그거는 직접 놔준 사람이 폭로한 게 아니고 관련자가 폭로한 것일 텐데 직접 놔준 애들이 확 무너질까? 그건 결대로 수사하면 되는 거지.

이동재 : 오늘 저녁은 어디서 드세요?

한동훈 : 뭐 관내 어디 잡았겠지.

이동재 : 여기는 식당이 없는 거죠? 대검 같이 그런 용도의 대형 식당은.

한동훈 : 식당은 있지만 그거 하는 사람들이 대검은 규모가 크고 그런 행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절한 인력이 있지만 여긴 없지.

이동재 : 오늘 왠지 조선일보 이런 데서 식당까지 따라와서 할 것 같아서.

한동훈 : 안 따라와. 서울에서도 안 따라오는데. 따라 와서 뭐해.

이동재 : 아니 옆자리에 앉아서 구석에서... 그런데 갑자기 총장님이 “어~~” 이렇게 할 것 같고.

한동훈 : □□□□(타 언론사를 지칭) 같은 애들이 하는 거지.

이동재 : 그런데 사무실이 되게 크네요.

한동훈 : 다른 사무실 보다는 작지. 아니 비슷하나? 규격, 규격이 있을 텐데.

이동재 : 아니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2시간 반이라는 게 짧다면 짧고 오래 걸린다면 오래 걸리고. 이게 대전까지는 금방 온 거 같은데.

한동훈 : 뭐 SRT? 뭐 그거야 생각하기 나름이죠. 오면 좋잖아.

이동재 : 네.

한동훈 : 나 주말마다도 잘 안 올라가요. 제 나이 정도 되면 반겨주지도 않아 잘. 학원 다니고 각자 바쁘자나

일상이 있어서.

이동재 : 내려온 언론사도 좀 있었어요 검사장님?

한동훈 : 여기? 꽤 많이 왔다고 그러던데.

이동재 : 아니 아니 검사장님 뵈러 이렇게 여태까지.

한동훈 : 온다고 했는데 내가 날 좀 풀리면 오라고 했어요. 추울 때 와서 뭐해. 그래도 오면 바다라도 좀 봐야지.

이동재 : 저희도 3월 달에.

한동훈 : 3월 달에 부산 바닷가에서 술 한 잔 먹으면 좋아. 바다 내려다보면 기분도 있잖아.

이동재 :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신라젠 이런 거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한번 수사가 됐던 거잖아요. 라임도 그렇고

한동훈 : 그렇지만 의지의 문제지.

이동재 : 잘 하실까요?

한동훈 : 열심히 하겠죠. 총장 계속 물론 뭐 저쪽에서 방해하려 하겠지만, 인력을 많이 투입하려고 할 거고.

이동재 : 신라젠에 여태까지 수사 했던 것에 플러스 이번에 어떤 부분을 더 이렇게...

한동훈 : 여태까지 수사했던 것에서 제대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이동재 : 예예.

한동훈 : 전체적으로 봐서 이 수사가 어느 정도 저거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다중으로 준 거야. 그런 사안 같은 경우는 빨리 정확하게 수사해서 피해 확산을 막을 필요도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썬 사람 몇 명이 피해를 입은 것하고, 같은 거라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1만 명이 100억을 털린 것하고 1명이 100억을 털린 것 하고 보면 1만 명이 100억을 털린 게 훨씬 더 큰 사안이야. 그럼 그 거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적어도 사회가 지금 보면, 요즘 사람들, 여기 사람들 하는 것 보면 별로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 그게 무너진다고. 뭐냐면 뭔가 걸리거나 그랬을 때 사회가 모든 게 다 완벽하고 공정할 순 없어. 그런 사회는 없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해 보이게 라도 해야 돼. 그 뜻이 뭐냐? 일단 걸리면 가야 된다는 말이야. 그리고 그게 뭐 여러 가지 야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걸렸을 때, “아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성내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 그렇게 되면 이게 정글의 법칙으로 가요. 그냥 힘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받을 위험성이 아주 현격하게 그것도 게다가 실제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게 공개적으로 공식화되면 안 되는 거거든. 뇌물을 받았으면 일단 걸리면 속으로든 안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미안하다 하거나 안 그러면 걸리면 잠깐 빠져야 돼.

이동재 : 네

한동훈 : 그런데 너 한번 입증해낼 수 있어? E○○이 “입증할 수 있겠냐”. 야 △△ △ 아니야? 그런 워딩 봤어?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라니. 아니 그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해. 그건 방어니까. 언론에 대고 입증할 수 있겠어 검찰이? 라고 하는 거 봤어? 내가 안 했다가 아니라. 입증할 수 있겠어? 야 이거는 △ △△이야. 이 워딩은 다른 것 보다. 야~ 이 사람들 참.

이동재 : 이번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그거랑 F○○이 공수처도 얘기했는데 윤석열부터. 아니 아무리 지가 속

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동훈 : 그런 애들이 지금 이걸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장으로 가는 거야. 이게 도움이 되겠어? 여당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동재 : A○○ 장관도 여당에 안 좋은 일만 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 당연하지. 그분은 항상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그런 짓을 하잖아. 그래왔잖아. 우리는 신나있지. 매번 그게 아니면 어디 언감생심...

이동재 :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법무부도 그렇고 기자들도 생각하는 게 사실 신라젠도 서민 다중 피해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시민 꼴 보기 싫으니까. 많은 기자들도 유시민 언제 저기 될까.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한동훈 : 유시민 씨가 어디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니. 그런 정치인이라든가...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닌데 뭐 정치인 수사도 아니고 뭐.

이동재 : 결국에는 강연같은 거 한 번 할 때 한 3천만 원씩 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한 번, 아 옛날에 한번 보니까 웃긴 게 채널A가 그런 영상이, 협찬 영상으로 VIK를.

한동훈 : 하여튼 금융 범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중요해. 그게 우선이야.

이동재 : 이걸 뭐야.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한동훈 : 뭘 보도자료를 또 냈어?

이동재 :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한동훈 : 뭘 소리냐 진짜.

후배 기자 :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에서 입장을 냈네요. 올릴까요? 법조팀 방에다가.

이동재 : B○○?

후배 기자 : 네

이동재 : 올려

이동재 : (보도자료 읽는 중) “중립성과 객관성 논란이 많았고, 증거와 법리의 문제가 제기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동훈 :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프로포폴을 많이 맞았을 텐데 저렇게 나와 버리면 입증하기 적절치 않아.

이동재 : 프로포폴도 프로포폴이지만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한동훈 : 뭘 △△△야.

이동재 : 이거는 읽으면 읽을수록 문단 문단별 다...

한동훈 : 아 나 안 읽을래. 읽어서 재밌는 거 있으면 알려줘. 읽을 필요도 없어. 아니 여러 명이 보내주는데

이동재 : 전임 검찰총장 얘기하는 건 좀 그렇다.

한동훈 : △△△야. G○○하고 하라 그래. 전임 대통령하고 하든가. 아니 이렇게 나오는 게 A○○만 신난 거야.

이동재 : 아니 해보고 싶은 거 머리 속에 떠오르는 거 다 해보는 거 같은데.

한동훈 : 에이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겠어? H○○, F○○이지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러면 갑자기 A○○가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인사를 어떻게 콕콕 집어서 내. 당연히 저쪽이지.

이동재 : I○○이 참 잘 보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있으면서도 글 쓰는 거 보면,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한동훈 : 꼭두각시지 뭐. 자기는 그냥 신문에 얼굴 자기만 나오면 되는 거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지껄여 버리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거의 무슨 뭐 1800년대 후반 같은 말을 하잖아. 지가 되게 멋있는 줄 알아.

이동재 : 이러다가 진짜 정권 바뀌면 어떻게 하려고. 다 자기들이 만든 걸로 자기들이 당할 텐데 정말.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한동훈 : △△ △△ △△이야 저게?

이동재 : 예전에 댓글수사 때요. 2013년 댓글 수사 때 그때도 J○○ 장관이었지. J○○ 장관이.

한동훈 : 이렇게까진 안 했어. 의견을 가지고 오면 통기고 통기고 통기고 하는 거였지.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

이동재 : 그 때 보면 A○○가 댓글 수사 위원장 이런 거 했어요. 시간이 돌고 도는구나.

한동훈 : 그 때도 이런 사람이었고 지금도 이런 사람이야.

이동재 : 그래서 요즘 기사를 쓸 때 사실 이전에 수사가 막 돌아갈 때는 수사 내용 말하고 매일 매일 괴로운 나날이잖아요. 누구와 누가 의견 대립 막.

한동훈 : 뭐 그냥 노골적으로 쓰면 돼. 그리고 그냥 뭐 제3의 장소에서 논의한다. 제3은 개뿔, 대검 반대 의사를 총장에 밝힌 거야 저쪽에다가. 무슨 제3의 안이야. 제3안의 안이 어딴어.

이동재 : 법무부에서 오늘 얘기하는 게 시간이 없어서 부산 가시느라...

한동훈 : △△△△ 진짜. 그냥 오지 말라고 한 거야. 뭘 소리야. 아니 사전에 얘기도 안 했자나 전혀. 뒤통수쳐 가지고 무슨 그거 한 줄 넣어서 총장하고 얘기했다는... △△ △△들이야.

후배 기자 : 협의를 시도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한동훈 : △△△△ 진짜. 그러면 시간이 그동안 많은데 왜 사전에 얘기 안 했어. 쪽팔린 줄 알아야지. 이럴 때 잘하라고 검사들이 신분 보장 받는 거예요. 징징거리지 말라 그래. 맨날 뒤에다가 검사들한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긴 △△△△들 뭐가 어쩔 수 없어. 신분 보장 받고 있어서 평생 영감 소리 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왜 △△ △△들이 징징거리. 개기든가 아니면 확 K○○처럼 △△주든가.

이동재 : 아니 L○○ 국장님은 좀 M○○하고는 다를 줄 알았더니 요즘 보니까.

한동훈 : 비슷해

이동재 : 그때 뭐 지난주인가 A○○가 헛소리하고 간 날 있잖아요. A○○가 △△하니까. 중간에 계속 본인이 끼어드셔서.

한동훈 : 본인이 끼어드셔서 얘기하는 것도 시원찮아요. 원래 그런 분은 아니야.

이동재 : 그렇습니다 아무튼. N○○ 검사장하고는 총장님하고는 사이가 괜찮아지셨어요?

한동훈 : 그거야 그 자린 참모일 뿐이자나. 참모는 보스가 안 쓰면 그만이야.

이동재 : 업무에 대한 파악은 제대로 하셨나 싶어서.

한동훈 : 나야 모르지. 별로 관심이 없어.

이동재 : 사실 강력 이런 것만 하셔서 신라젠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으려나.

한동훈 : 신라젠은 법무부에 (수사 인원) 늘린다고 놀라니까 보도자료 뿌렸자나. 뭐냐 그게. 신라젠에 투입 안 했다는 보도자료는 왜 내야 해. 참 깜찍해. 참 사람들. 나쁜 놈을 잡아야지. 그렇게 하려고 월급 받는 거 아니야.

후배 기자 : 총장님께서 뽑으신 네 명은 다 라임으로 가고 원래 계셨던 분들이 신라젠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동재 : 그렇지.

한동훈 : 좀 남아 더 하면 되지.

이동재 : 신라젠에 몇 명 들어간 거예요? 자세히 안 알아봤는데

한동훈 : 그냥 뭐, 한 3명, 4명 하는 거 같은데.

이동재 : 그 정도로 이걸 할 수가 있나.

한동훈 : 놀려야지. 신라젠은 법무부에서 화들짝 놀랐다는데. 왜 놀래냐 도대체. 왜 놀래야 되는 거야. 자기도 관련 없다며. 정치사건 아니잖아 그럼.

이동재 : 서민 민생 사건이잖아요.

한동훈 : 그렇지. 왜냐하면 신라젠에 사람 투입했다는 말만으로 9%가 하루에 빠지지? 그럼 그건 작주야. 작전 주야 이거는.

이동재 : 사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회사에 올려봤어요. 이제 법무부 견제 하려고 하고 법무부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면서, 약간 니가 그거 재네 플레이에 니가 바보같아 질 수 있다. 이러면서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한동훈 : 재네 플레이 못 해.

이동재 : 일단은 신라젠을 수사를 해도 서민 이런 거 위주로 가고 유명인은 나중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 유명인은...

이동재 : 유시민은 한 월말쯤에 어디 출국하겠죠. 이렇게 연구하겠다면서.

한동훈 : 관심 없어. 그 사람 밀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그 1년 전 이맘때쯤과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이나 말의 무게를 비교해봐.

이동재 : 지금은 뭐 그냥 누구냐, O○○ 수준이죠.

한동훈 : O○○보다 아래 아니야.

이동재 : 사실 저희가 요즘 P○○(후배기자)를 특히 시키는 게...성공률이 낮긴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가되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

후배 기자 : 시민 수사를 위해서 (겹쳐서 잘 안 들림)

이동재 : 이철 아파트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한동훈 : 그건 해 볼 만 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붙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지가 불기 시작하잖아.

이동재 : 이철, Q○○, R○○.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재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한동훈 :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이동재 : 14.5년이면 너 출소하면 팔순이다.

후배 기자 : 가족부터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 집을 보니까 옛날에 양주, 의정부 이쪽에다가 막 10개 썩 사고 이랬었는데 지금 다 팔고.

후배 기자 : 와이프만 찾아도 될 텐데

한동훈 :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은? 어디서 진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이동재 : 일단 구치소로는 편지를...

한동훈 : 아니 지금 말이야. 지금 여기.

이동재 : 아 지금이요. 저 방금 도착해서 방금 왔으니까. 뭐 근처 카페나 어디 있겠죠.

한동훈 : 내가 이제 좀 가야 해서.

이동재 : 아무튼 있다가 2시에 다시 뵙고

한동훈 : 그냥 뭐 약속하는 거 사진 찍으러 온 거 아니야?

이동재 : P○○ 통해서 3월에 한 번 연락드릴게요.

후배 기자 : 그때 찾아뵙게요. 감사합니다.

(퇴장)

2. 위 녹취록을 근거로 MBC 보도가 ‘오보인 부분’을 지적합니다.

가. 오보내용 1

‘피해자 이철 씨 측을 압박해 유시민의 범죄 정보를 얻으려 한다’는 등 취재의 목적을 말하는 이 전 기자에게, 한 검사장은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는 말을 한 걸로 검찰 수사팀이 파악했습니다.

⇒ 실제 사실관계

- 이동재 기자가 ‘신라젠 수사 부분’을 취재해 나가되, 후배기자는 ‘유시민 관련 의혹’ 부분을 전담하여 취재시키겠다고 말함
 - 특정 정치인을 표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유시민 관련 강연료 의혹이 언론에 제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한동훈 검사장은 이에 대해 ‘그건 해 볼 만 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언론에서 자신이 VIK에서 강연료를 받고 강연한 사실을 먼저 털어논 적이 있다’는 의미의 말을 함
- 전체 20여 명의 대화 중 대부분은 공수처, 법무부 현안, 프로포폴 의혹, 부산 근황이고, 신라젠 대화는 전체 20%에 불과
 - 위 녹취록 전체 취지를 보면 ‘피해자 이철 씨 측을 협박 또는 압박하여 유시민의 범죄 정보를 얻으려 한다’는 불법적인 내용을 상의하고 이에 대해 공모하는 것이 아님
- 신라젠 취재팀에서 막내 기자 한명을 유시민 관련 의혹에 투입하겠다는 말에 ‘그런 것은 이미 언론에 제기된 의혹이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라고 말한 것을 MBC가 마치 범죄 공모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왜곡보도임

이동재 : 사실 저희가 요즘 P○○(후배기자)를 특히 시키는 게...성공률이 낮긴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가되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
 후배 기자 : 시민 수사를 위해서. (겹쳐서 잘 안 들림)
 이동재 : 이철 아파트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한동훈 : 그건 해 볼 만 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붙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지가 붙기 시작하잖아.
 이동재 : 이철, Q○○, R○○.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재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한동훈 :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이동재 : 14.5년이면 너 출소하면 팔순이다.
 후배 기자 : 가족부터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 집을 보니까 옛날에 양주, 의정부 이쪽애다가 막 10개 썩 사고 이랬었는데 지금 다 팔고.
 후배 기자 : 와이프만 찾아도 될 텐데
 한동훈 :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은? 어디서 진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이동재 : 일단 구치소로는 편지를...
 한동훈 : 아니 지금 말이야. 지금 여기.

나. 오보내용 2

녹취록을 확보한 검찰은 당시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사건 관련 여권 인사들을 취재 중인데, 이철 씨와 그 가족을 압박해 유시민 등의 범죄 정보를 구하고 있다’며 편지를 썼고, 가족을 찾아다니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검사장은 ‘그런 것은 해 볼만하다. 그런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 실제 사실관계

- KBS 보도에 이어 MBC가 새로 제시한 사실관계는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것은 해 볼 만 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정도임
- ‘신라젠 사건 관련 여권 인사들’만을 (표적으로) 취재 중이라고 한 적이 전혀 없음
 - 유시민은 이미 VIK에서 두 차례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받은 의혹, 신라젠에서 축사를 한 의혹 등이 언론에 불거졌기에 언급한 것임
 - MBC 보도만 보면 이동재 기자가 정치 편향적으로 여권 인사만을 표적으로 취재한 것으로 읽혀지는 바, 이는 사실과 다름
 - * 소위 BBK 사건에서도 유명 정치인이 영상에서 특정 회사를 홍보한 내용이 언론보도가 되었고, 이후 특검으로 이어진 바 있음 (당시 VIK는 널리 알려진 회사가 아니었고 장관 출신의 유명인이

강연을 한 점이 화제가 되었기에 취재에 나선 것이며 타사도 취재한 곳들이 많음)

- 가족을 찾아다니는 말은 ‘가족의 비리’를 찾는다는 게 아니라, 이철이 중형을 선고받았기에 가족과 접촉이 되면 설득을 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 특히, 검찰이 강요미수의 협박으로 의율한 핵심 내용인 ‘편지 부분’은 대화 말미에 잠시 언급된 후 덕담을 하고 대화가 황급히 종료됨
- MBC 보도의 전체 취지는 위 부산 대화가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이지만, 전체 대화 취지를 종합하면 ‘편지의 내용, 발송 시점, 압박의 수단, 수사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나 상의가 없음

3. MBC 보도가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표현 및 구도에 기반한 것으로 보여 그 점을 지적합니다.

가. MBC 보도의 기반이 된 것으로 보이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을 일부 공개함

MBC 보도 내용	구속영장 범죄사실
<p>그런데, <u>피해자 이철 씨 측을 압박해 유시민의 범죄 정보를 얻으려 한다는 등 취재의 목적과 방법을 말하는</u> 이전 기자에게 한 검사장은 ‘<u>그런 것은 해 볼만 하다</u>’는 말을 한 걸로 수사팀이 파악했습니다.</p>	<p>한편 피의자는 2020. 2. 13. 백승우와 함께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근무하는 한동훈을 찾아가 피해자의 형량 등을 언급하면서 ‘신라젠 사건 관련하여 여권 인사들에 대한 취재를 하고 있다는 사실, 피해자와 그 가족을 압박하여 유시민 등에 대한 범죄정보를 얻고자 한다는 사실, 이를 위해 피해자에게 편지를 썼고 그 가족을 찾아다니는 사실’ 등 피해자를 취재하는 목적과 방법, 그동안의 경과 등을 말하였다.</p> <p>이에 한동훈은 ‘그런 거는 해볼만하다,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고 말하였다.</p>
<p>당시 이 전 기자는 “일가족을 설득해 유시민 등 정치인들에게 뿌린 돈과 장부를 받으려 한다”고 채널A 법조팀 대화방에 공유했습니다.</p>	<p>피의자는 2020. 2. 6. 그때까지의 취재 결과를 정리해 채널에이 보도본부 사회부 법조팀 기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이철은 유시민 등 여권 인사와 친분이 깊어. 목표는 ‘징역 12년은 재기불능, 당신은 정권의 희생양’이라는 식으로 일가족을 설득해서 유시민 등 정치인들에게 뿌린 돈과 장부를 받는 것”이라는 글을 올려 위 법조팀 기자들과 공유하였다.</p>
<p>이를 뒤에는 <u>권순정 대검찰청 대변인을 찾아가 ‘유시민을 수사하고 처벌 받도록 하는게 취재의 목표’라며 취재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u></p>	<p>이후 피의자는 2020. 2. 12. 백승우와 함께 대검찰청 대변인 권순정을 만나 검찰의 신라젠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유시민을 수사 및 처벌받게 하는 것이 취재 목표라고 하면서 구치소에 있는 피해자에게 편지를 썼다고 말하며 신라젠 사건 취재방향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였고, [REDACTED]</p>

<p>녹취록을 확보한 검찰은 당시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사건 관련 여권 인사들을 취재 중인데, 이철 씨와 그 가족을 압박해 유시민 등의 범죄 정보를 구하고 있다’며 ‘편지를 썼고 가족을 찾아 다닌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p>	<p>나. 피의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p> <p>피의자는 2020. 1.말경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이 신라젠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는 타 언론사 보도 및 법조 출입 기자들 사이의 풍문을 듣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유시민 등 여권의 특정 거물급 인사에 대한 범죄정보를 얻을 개인적 욕심에서 피해자 가족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그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신라젠 사건 취재에 착수하였다.</p> <p>한편 피의자는 2020. 2. 13. 백승우와 함께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근무하는 한동훈을 찾아가 피해자의 형량 등을 언급하면서 ‘신라젠 사건 관련하여 여권 인사들에 대한 취재를 하고 있다는 사실, 피해자와 그 가족을 압박하여 유시민 등에 대한 범죄정보를 얻고자 한다는 사실, 이를 위해 피해자에게 편지를 썼고 그 가족을 찾아다닌다는 사실’ 등 피해자를 취재하는 목적과 방법, 그동안의 경과 등을 말하였다.</p> <p>이에 한동훈은 ‘그런 거는 해볼만하다,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고 말하였다.</p>
<p>3월 10일 오전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카카오 보이스톡 통화도 주목하고 있습니다.</p>	<p>피의자 이동재도 소환 조사시 알지 못했던 내용으로서, ‘증거관계’가 그대로 언론에 먼저 유출된 것임</p>